

9 771228 075002
ISSN 1228-0755
06

Monthly Ceramic Art
유기
도예

June 2011

문화관광부 지정 제15회 우수잡지 선정



Special Feature **도자상품 마케팅에 대한 제언**

Artist 김시영 | 김기찬 | 원복자 Focus 아사카와 노리타카-타쿠미 형제의 마음과 눈
World 착시의 캐스팅 Richard Shaw의 예술세계 · SOFA NEW YORK 2011

현대미술의 7가지 키워드와 함께 떠나는 방창현의 세계도자기행(15)

이 글은 현대미술의 중요한 키워드인 숭고the sublime, 몸body, 미니멀리즘minimalism, 물성materiality, 서사narrative, 개념미술conceptual art, 팝아트pop art를 중심으로 본 현대도에 비평의 글이다. 하지만 형식면에서는 기행문적 수필의 형식을 빌어 독자들이 현대 도예 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한국의 현대도예가 오랜 동면의 시기를 지나 이제 찬란했던 옛 영화를 위한 용트림을 하는 이 시기에 한국 현대도예의 미래 비전과 현재의 성찰을 제시하는 글이 될 것이다.

세도나Sedona는 없다

열다섯 번째 작가 : 수잔 바이너Susan Bei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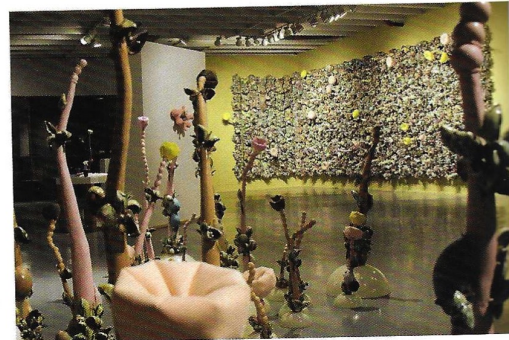
세상의 가치는 모두 모사된 것에 불과하다.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차를 살 것이냐, 다른 차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정도의 자유 밖에 없다. 이것은 모사된 자유일 뿐이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사실 수잔 바이너Susan Beiner의 전시보다 아리조나Arizona에 있는 세도나Sedona의 거대한 협곡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다. 무엇보다 신령한 정기가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신비의 땅은 많은 명상가와 예술가들을 위한 구원의 땅 혹은 영혼의 안식처라고 불리지 않았던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어떤 기(에너지)의 작용으로 세도나는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치료와 소생의 땅'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곳에서 나는 인간이 만든 예술품보다 신이 만든 천혜의 협곡과 광활한 대지를 마주하고 싶었다.

아리조나 피닉스Phoenix에서 100마일을 자동차로 달리다 보니 어느덧 차창 너머 'Sedona' 라고 쓰여진 나무 표지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30마일을 더 달리자 드디어 세도나의 광막한 풍광이 내 눈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나는 아이처럼 설레는 맘을 주체할 수 없어 잠시 들숨과 날숨의 간격을 조절했다. 하지만 세도나의 기운을 받아 명경지수明鏡止水를 꿈꾸던 나의 마음은 순식간에 허망감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창문에서 흘러들어온 세도나의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상이했다. "세도나가 혹시 이곳이 아닌가?" 꼬리에 꼬리를 물던 나의 의문들은 'Welcom to Sedona' 라고 쓰여진 표지판





《Synthetic reality》 installation

앞에 단숨에 사라져 버린다.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절박감을 뒤로하고 몇 마일을 더 달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평소에 세도나(Sedona)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에서 만들어진 실재를 압도하는 이미지가 나의 뇌리를 가득히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도나의 '하이퍼 리얼리티(Hyper Reality)'는 실제 세도나의 모습을 너무도 초라하게 만든 것이었다. 세도나는 없었다. 이것이 내가 아리조나에서 처음 맞닥뜨린 현실이었다.

이미지가 실체를 압도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뒤로하고 나는 수잔 바이너(Susan Beiner)의 전시를 보러 아리조나 템페(Tempe)에 있는 세라믹 리서치 센터(Ceramics Research Center)로 발길을 돌렸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Synthetic Reality'라고 벽면에 적혀진 전시제목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조작된 실재'라고 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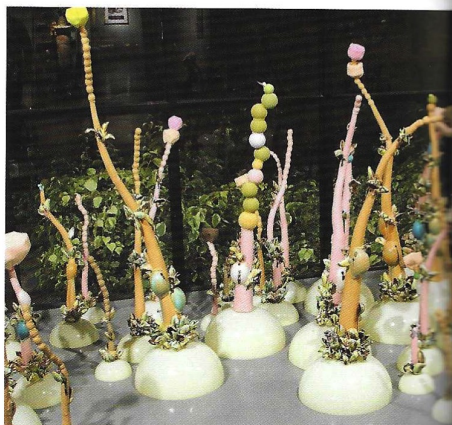
전시장 벽면에는 온통 고부조 형태의 이름 모를 식물과 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 슬립 캐스팅(slip casting, 석고틀을 만든 후에 흙물을 넣어서 원하는 형태를 뽑아내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자기(porcelain) 형태의 식물과 꽃들은 다양한 천연색의 칼라로 뒤덮혀 있었다. 마치 해저 속에서 자연증식을 거듭하는 익명의 산호와 연상체, 해면동물, 그리고 만각류(蔓脚類, Cirripedia)들이 깔려



(Synthetic reality) installation



'GM (Genetically Modified),



를 온통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었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거북손, 조무래기따개비, 주머니벌레, 줄따개비등 백과사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다양한 생명체들이 즐비하게 그 형형색색의 모양새를 관객들에게 뽐내고 있었다. 도무지 도자기로 이 많은 생명체를 만들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지천으로 펼쳐진 생명체들은 언뜻 보기에 녹색인 듯도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 안에는 자주빛도 있고, 분홍과 주홍의 미세한 차이도 드러내고 있었다. 달콤한 팔레트에서 빛어지는 오묘한 색조와 그 형들은 실제 생명체들의 그것들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했다.

경이로운 것은 시각만이 아니었다. 마치 봄날에 흩어지는 수수愁로운 소녀들의 체내음인 듯도 했고, 심해 기암괴석에 달라 붙어있는 해초류에서 퍼져 나오는 비릿한 생내음과도 같은 쉽게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전시장에 가득했다. 경이로운 이 두 감각을 더하면 공감각이라 했던가. 아무튼 전시장 안에 있는 동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기운이 밀려들어와 잠시 꺾리리 밖으로 나와야만 했을 정도였다.

갤러리로 들어와 다시 자세히 작품을 들여다보니 그 생명체 하나하나의 처음에 익숙했던 이미지에서 물러나와 다른 형상을 하고 있었다. 자연의 생명체가 아니라 인조적인 형상을 하고 있는 놈들도 보였고, 군데군데 기계성을 지닌 볼트bolt와 너트nut도 오묘히 고개를 내밀고도 있었다. 무엇보다 흙을 구워 유약을 입힌 다른 작품들과는 너무나 생경하게 대조를 이루는 플렉시글라스Plexiglas가 작품 속 군데군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황홀한 ‘헛것’에 속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언뜻 보기에 자연의 풍광이 연출된 것 같은 갤러리는 기계성을 지닌 인조적 자연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볼트와 너트 그리고 플렉시글라스가 이렇게 완벽한 자연의 조화를 위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탄성을 내질렀다. 무엇보다 작가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 완성도는 형언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수잔 바이너Susan Beiner의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전시의도가 확연해질수록 나는 오히려 흥미함을 느꼈다. 도대체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리저리 아리조나Arizona는 내게 허상만을 보여준 꼴이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이 모두 ‘허상’의 일면이면 어떻게 하나? 진짜와 가짜가 뒤엉켜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이 시대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어쩌면 삶 자체가 거대한 허상은 아닐까? 끝없는 우문과 허망감이 뒤섞여 나는 갤러리를 떠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익명의 나무와 꽃들의 수해濼海에 매료되어 떠들어 대던 나의 미사여구美辭麗句들은 보기 좋게 소박疏薄한 꼴이었다.

수잔 바이너Susan Beiner는 작가로 활동하던 초창기에 18세기 유럽의 궁정에서 이용되던 화려하고 장식적인 자기에 영향을 받아서 작은 오브제를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갤러리를 가득 채울 만큼의 거대한 설치작품에 천착해 왔다. 이 설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초창기에 작가가 매료되었던 장식적이고 다채로운 색조와 형상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이 생명체들 사이에 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업용 철물들도 원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장식적인 칼라로 뒤덮여 있다. 작품 속에서 용도가 전이된 이 공업용 재료들과 플렉시글라스Plexiglas는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공적인 환경을 은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수잔 바이너는 어린 시절 화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기물을 합성물질로 만드는 과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가의 관심은 물리적 변형에서 점차 사회적 현상과 기호를 다루었던 포스트모더니스트postmodernist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¹⁾의 철학까지 확장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들을 섭렵하는 과정에서 수잔 바이너Susan Beiner는 동시대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타성적인 시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 발견은 우리가 지금 보고있고 믿고있는 세계가 실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작가는 디지털화 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감추어지거나 심지어 조작되는 ‘실재reality’에 주목한다. 중요한 것은 이 조작된 이미지들의 작용이 과거보다 더욱 더 현저해진 것이다. 워쇼스키Wachowski 형제가 만든 영화 매트릭스Matrix 3부작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현실은 ‘진짜’와 ‘시뮬레이션’의 경계가 모호하게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고도로 발달한 이미지 조작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일상에서 현실을 모조처럼 조작하거나, 반대로 모조가 실재를 대신하려는 상반되는 현상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²⁾

1)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1929~2007)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끈 대표적인 프랑스 철학자이다. 장 보드리야르는 그의 대표작 시뮬라시옹Simulation과 시뮬라크르Simulacra를 통해 ‘모사된 실재’가 ‘실재’를 대체하는 현대의 사회현상을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미지의 세계는 실재보다 더 실제적이어서 가상과 실재의 경계를 흐리고, 심지어 ‘조작’의 개연성마저 내포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그의 사상은 1970년대 이후 문화이론과 미디어, 예술, 사회현상까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강수미, 시뮬라크르 루시다, 정연두 미술비평



Urban Garden(best),

수잔 바이너Susan Beiner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이 실제세계를 가리고 조작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다. 이 실제세계를 가장 대표하는 것은 '자연'의 세계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서로다른 양가감정兩價感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을 인간의 영혼을 위한 안식처로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고쳐야할 대상으로도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신이 만든 자연의 세계를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인간의 욕망은 최근 많은 대가를 치루고 있다. 핵전쟁과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무엇보다 최근 지진의 여파로 생긴 일본의 원전 사고는 자연의 조장을 위해 사용되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치명적 위험성을 인류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가족이 쓸려 내려가고, 인간이 만든 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고층빌딩과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는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 리얼했다. 사람들은 원자로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일본의 기술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위정자爲政者들은 이번의 사고를 잘 극복하면 일본기술의 위대함을 세상에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언제나 인류에게 진보와 개발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삶의 영역이 커지고 깊어질수록 더 많은 숲과 생물이 사라지고, 토양은 오염된다.³⁾ 인간의 욕망은 유전자 조작이나 핵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이와 같이 인간의 과학이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의 형태로도 전개된다. 일본의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의 수레바퀴, 즉, 테크놀러지와 자본 투자,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으로 굴러갔다."⁴⁾라는 글로 인간의 기술과 무모한 욕망에 경고성의 글을 전달한 바 있다.

혼합재료를 이용해 1년 이상의 작업기간이 소요된 이번 전시 'Synthetic Reality'에서 수잔 바이너Susan Beiner는 오랫동안 자신의

3) 장석주, 장석주의 독서일기- 삶은 기적이다, 뉴스메이커 750호

4) 무라카미 하루키, 1973년의 핀볼, 문학사상사, p.39



「outcrop」



「Germinating, installation view」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해온 '대조'의 기법이 단연 돋보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자연성을 나타내는 '흙'이라는 재료와 인공성을 드러내는 플렉시글라스Plexiglas나, 인조고무,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적인 재료의 대조이다. 작가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를 병치시킴으로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무엇보다 바로크적인 장식과 미니멀한 형태의 대조도 눈여겨볼 만하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번식하기, 겹쳐쌓기, 병치하기, 파편화시키기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작품의 개념과 기술적 완성도를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말했다. 작가의 이 현란한 기술들은 끊임없이 인공적인 인간의 환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작가는 이번 전시 'Synthetic Reality'를 통해 익숙한 듯도 하면서 낯설기도 한 인간이 만든 조작된 실재를 관객들에게 깊이 인지시켰다.

아리조나를 떠나면서 나는 그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헛것'들에 대한 미망에 시달렸다. 어쩌면 사랑도, 꿈도, 희망도 실체가 없이 부유하는 헛것들의 그림자는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 헛것들의 세계는 우리의 현실의 세계에서 몰아낼 수 없을 만큼 낯설과 씨실로 정교히 직조되어 있었다.

에필로그는 초라했다.

작가 수잔 바이너Susan Beiner는 미국 루트거 대학Rutgers University에서 학사를, 미시건 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도예로 석사를 받았다. 현재는 아리조나 주립대학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필자 방청현은 경희대학에서 도예학B.F.A과 영문학B.A을 전공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원SUNY New Paltz에서 도예학으로 석사M.F.A를 받았다. 미국 아메리칸 세라믹스 잡지사American Ceramics Magazine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대우교수adjunct professor로 재직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6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미국 Santiago Gallery에서 '2009년 올해의 한국작가'로 선정되었고, 독일 도예잡지 Neue Keramik 11월호와 미국 Lark Ceramics Book의 '500 Ceramic Sculpture'에도 작품이 소개되었다. 현재 경희대학교 도예학과에서 강의하며 도예가로 활동 중이다.